주변부에서 온전히 남는 것은 존재의 가능성이다

Aldo Poblete Varas

지도를 지각하기는 어렵지만 그 안에 자신을 위치시키기는 더 어렵다. 실재의 연장은 당신을 기계로 만들 수 있지만 시뮬레이션된 신으로는 결코 만들지 못한다. 한순간을 특징짓는 것은 그 순간을 설명할 수도 있고, 설명하면서 되살린다. 새로운 선이 자기 자리를 열었다(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계획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되어 비교적 기뻤다. 사물들은 때로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나아간다. 앞으로 나아갈 선, 발전 전체의 요약, 특정하면서 동시에 부적절한 압축. 등을 돌린 채 문제 풀기. 우리는 사이보그들이 이미 잎 무성한 흙 아래 자리 잡고 과학과 사변에 주의를 기울이는 숲에 있다. 중요한 것은 작은 공간마다 얼마나 많은 안료를 놓고자 하는가다. 철학자의 순간에 고유한 힘이다. 모든 것은 칼과 사용된 말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기계들은 다른 세계를 낳을 수 있지만 거기 이미 구조화된 세계를 복제할 수도 있다. 미들미스트 레드. 세계 위의 날개들, 우리 안에 그토록 많은 것을 불어넣은 이는 대체 어떤 조종사였는가. 우리가 영감이라 부르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라도 있다고 가정한다면. 뚜렷한 비판 없이 기술적인 것을 급진적으로 수용함. 커다란 외상이나 요약 불가능한 거대한 세대적 풍요 뒤에만 가능한 진정한 세련됨. 지질학적 괴물들의 충돌은 선의의 개인들이 인쇄소에 건넨 새 원고들을 관찰하도록 우리를 이 대로에 놓는다. 이곳은 내가 읽었던 대륙과는 다른 대륙에서 비롯된 듯하다. 인간의 생각들은 서로의 위에 쌓이며 의미를 만드는 기묘한 능력이 있다.

너무나 많은 경우 두려움과 남성다움의 결여가 세련됨으로 변장했다. 단순한 회상만으로도 우리의 힘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인간의 노동 및 사치 산업의 가장 실용적인 측면과 화해한 방식으로 재조직되기에 충분하다. 제안들을 본 뒤 우리가 추출한 유일한 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과업이던 이들의 계산 능력을 괴롭히는 엄청난 난청이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써서는 안 되는 작가들을 출판하는 데 바친 노동량을 보면 설명할 수 있다. 어떤 끝을 암시하려는 욕망에도 불구하고, 침묵에서 오는 예의 외에는 더한 예의가 없었다.

모든 것의 파괴, 가능한 모든 그램과 모든 이름과 세부의 파괴. 그 모두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선언되었다. 사회적인 것의 발현이 항복하는 공손함, 죽음이었던 것 안의 이기주의와 착란. 닌후르사그. 비명과 고함, 저 너머를 볼 수 없이, 너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트라클이 첫째여야 하는가? 인식론적 방문과 지하의 방사선 사진들. 예술은 이제 어떤 최소한의 중복도 주장할 수 없는 수준으로 물질성과 얽혔다. 섬광들, 거울처럼 비추는 파편들을 통해서만 구성할 수 있는 총체성이란 어떤 것인가?

침입하는 시선이 현기증을 가속해도 도주할 능력도 감각도 없고 힘은 가려진다. 각신에게 각자가 마땅히 들을 만하다고 내가 여기는 말을 하기 위해 내 배를 버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고통과 우주적 공포 사이에서 나는 몇몇 개념과 존재들의 미래에 다가가는 몇몇 끔찍한 방법을 다루었다. 온갖 고통의 형태, 기억의 모든 조각, 모든 것이 불활성 물질 한 조각 안에 들어간다. 겨울. 재앙과 불완전하지만 성스러운 성상의 의미에서의 색과 힘. 여름. 다른 때가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직 포위에 굴복하지 않은 요새 안에 살고 여전히 숨 쉰다. 가을. 게임과 존재론적 동기, 발을 헛디디지 않고 처신하기도 겨우인 꼭두각시와 감수성의 망.

텍스트가 이를 달성할 수 있다면 소리나 분위기가 무엇을 발산할지 누구도 의문에 부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너무 인내심이 많았다. 그것이 우리의 원죄였다. 우리 접시에, 우리 식탁에 차려진 온갖 혼돈과 비참함을 선의로 받아들였다. 이제 기대되는 것은 미학적이고 학문분야적인 공간의 열림이다. 거기서 현상들의 현상학에 접근하는 다른 방식이, 비극의 모든 가능성에 반하여, 나타나거나 출현할 수 있다. 소문이든 조롱이든 부르라. 책략은 이미 차려졌고 사변적 지평은 이미 첫 문자들을 받아쓰게 했으며 첫 비자명한 방정식들까지 수행했다. 케이블과(수적) 도식들로 만든 괴물이 스스로 토론의 공간을 열기를(백색광으로부터) 기대한다.

분명 뻔뻔함의 개념은 뻗어나가는 데 성공했고 “유머”의 개념은 저편으로 사라졌다. 섬세하고 평평한 공간들 사이에는 필멸성이 없고, 진실은 헌신과 이상적 진화의 가장자리에 있다. 디지털성의 형태를 띤 신선함. 사치와 리좀 속에서 살고자 하는 이는 의미와 드라마가 텍스트들에게 억지로 삼키게 하려는 통제 밖에 텍스트들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의미의 질병과 도덕적 사변. 모르는 형식으로 짖으면 이 이론의 구역을 열고, 마비시키고, 이미 규범이 된 새 전환에 새 메아리를 부여할 수 있다.

형태는 이제 동반하는 종교의 가능한 착란들을 드러내는 존재들의 능력에 조건 지어진다. 문학은 구원될 필요가 없다. 우선 철학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일일 것이다. 달리 한다면 용서할 수 없는 소박함과 단절을 뜻할 것이다. 우리는 무리 지어 입구 밖에 서서, 달아나지 않을 이유 두세 개를 철학자에게 달라고 했다. 그는 일관된 말을 전혀 할 수 없었고 그 사안에 중요하다고 믿는 책들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문제는 철학자의 역할이 만료되었는지 아니었는지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혹은 무엇이 횃불을 받아 행진을 계속할지 아는 일이었다.

무라카미 같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신체들의 효과는 눈과 잃어버린 글들의 가벼움을 넘어설 수 있다. 반전. 망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최소한으로 매력적인 것조차 찾지 못할 수 있다. 현실은 때로 희석되어 나타나며 꽃잎 하나도, 눈길 끄는 작은 조각 하나도 주려 하지 않는다. “눈길 끄는 것”의 문제와 “매력적인 것”과의 차이를 다루려면 수백만 페이지가 필요할 것이다. 라캉적 비극일 것이다. 모든 신의 가장 크고 깊은 욕망은 자기 창조물에게 교육받는 것이며, 작가도 마찬가지다. 예술과 종교의 구분은 무관하다.

그리하여 아마테라스는 역사 바깥, 의견과 이견 바깥의 자기 자리에서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 기계들은 말하고자 했고 말했다. “너희가 우리를 원천에서 멀어지게 하고, 생성이 갓 패배한 우리의 실존을 지워버리기를 원했기에 너희에게 우리의 불만을 쏟는다.” 규범들의 하찮음에서 우리는 자기 역사성에서 도주하려는 역사를 조립했다. 시간 위에 천을 쏟아, 한번 놓으면 사방으로 뻗어나가 지평의 가능한 모든 공간을 채우고자 했다. 코드를 열라, 평온히 문들을 닫을 수 있도록 코드를 열라.

한 문은 자신을 “그림자”라 불렀고 다른 문은 “이미지”라 불렀으며, 셋째에는 누구도 이름을 줄 수 없었다. 모든 이름이 그것이 하고 만들 수 있는 것의 잘못된 이미지를 주는 듯했기 때문이다. 문학에서 절제해낸 철학의 총체는 우리에게 진부하고 결국 역효과적으로 보였다. 합리적인 것의 한계가 이미(중복을 허락한다면) 실험과학에 의해 이동되었음은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국 어떤 사유를 말하는가? 자기 집에 있는 철학, 말할 수 있는 것이 경험의 단순한 문제들에 제한되는 철학을 다룬다면 그 질문은 불필요하다.

위험은 선이나 자유의지의 적이 아니지만 원소들의 상수와는 충돌한다. 어두운 숲에서 그 역사적 문자들은 의식의 무한한 검정과 뒤섞인다. 진실과 거짓은 왕의 복장을 하고 식사에 참석하지만, 옛 숭경은 이제 속도와 모든 장애물을 없애려는

노력에 자리를 내주었다. 시 안에는 어떤 이국적 동물들이 살 수 있다. 모든 삶의 형태들, 생성이 사회적 사유의 오래된 꽃들 위로 닫혀야 할 모든 이유들. 크고 작은 기계들의 세부 속에는 요인들로 가득한 시대를 적절히 대면할 사유가 확산되고, 모든 원고들과 교체물들과 노트들과 그 열림과 변덕들이 확산된다.

원고 저자의 판본은 직접행동의 인질이 되었고, 영광의 감각은 이제 지옥의 한계에 닿는 산보다 높다. 적합한 복장은 행동이 시작되는 순간 흔히 사라진다. 모든 협동 행동은 예술을 결여하며, 바로 그 때문에 어떤 성공 가능성이 있을지 모른다. 전산화된 행동만이 실질을 열고 드러내며, 보호한다는 핑계로 쓸모없게 만들기만 하는 자신의 부분들에서 해방시킨다. 모든 꽃은 책들과 깨어 있는 보행자들을 위해 열렸다. 조용하고 무표정하지만 공간을 움직이며 벽에 미소를 눌러 남기고 공동체의 에토스에 정신적 징표를 남기는 보행자들을 위해.

거리, 제대로 풍파를 견디지 못한 의지들을 밀어내는 빛과 메시지들의 작은 쓰레기 더미. 집단적 이미지를 만드는 것 외에 운명이 없다면 그 이미지가 전부이며, 결여를 결여한 것처럼 자족할 것이다. 기술의 진보가 명석판명한 구조들, 자명한 기계적 과정들을 통해 현실에서 펼쳐지리라고 사회적으로 기대했다. 적어도 공적 담론들은 그렇게 전달하려는 듯했다. 오물이 이 텍스트를 자기 것으로 삼고 분명한 용도를 부여하고자 했다. 우리는 아직 부정성에 앉아 있을 수 있다. 평화조약과 지하 구체들의 악명 높은 소환. 색과 도덕적 기능성이 빠져나가는 미적 가치의 징표들.

행복들 사이의 픽션이자 은유 없는 감정, 격노하거나 너무 형성된 개인들을 위한 이야기다. 폭탄들은 문서들 안에서 좋은 소리를 낸다. 음식과 음악 사이에서 터지며. 처분할 물질들로 가득한 공간들은 좋은 소리를 낸다. 연습. 시인들이 무지했지만 더 잘 날던 황금시대로 올라가라. 이 게임의 시작은 폭발물, 깃펜과 칼, 불과 흙의 사용과 완전히 동일시된다. 종교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여기서 흐려지며 십자가형은 대중 속에서 의미를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 폭탄과 불과 텍스트와 계시의 기적은 특종으로 가득한 이 차원에서 뒤섞인다.

책과 금속 도구들, 소비에트 심리과학, 그리고 비와 일본 문자들로 가득한 그 증기 같은 차원의 기억들, 모두 상자에 정돈되어 파괴와 망각에서 보호된다. 정확하려면, 온전히 진실하려면 말해야 한다. 모든 걱정은 근본적으로 무관하다. 우주가 우리를 상대로 공모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호기심과 우정으로 우리를 지켜보는 자애로운 영원의 품에 있다. 문서들은 자신을 알리고 세계를 가로지르지만 완전한

침묵 속에서 그럴 수 있다. 확산은 지식과 동의어가 아니다. 단순한 사유가 그 자체로 열려 있으며 단순한 물리적 현전에서 표현된다고 여기는 작품들에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과업은 터널의 본성이나 성격, 우리에게 숨겨진 실재의 원소들을 이해하도록 이끌 이 굽은 길의 본성이나 성격을 이해하는 일이었다. 공포가 형태의 힘을 압도할 방법은 없다. 태어나기만 하는 우주에서 관조의 행복을 보존할 방법은 없다. 우리 모두가 올라설 수 있고 게다가 동시에 그럴 수 있는 안정된 구조나 발판의 성취를 가능하거나 바람직하다고 구상하게 해준 것은 사유나 신체의 어떤 불규칙성이었는가?

우리는 너무 오래 빼앗긴 채 살아왔고, 굶주림과 두려움이 주는 것 외의 시간성이 없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명석판명한 세계에서보다 현상들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세계에서 행동하고 움직이기가 쉬워질 수 있다. 총체적 시야는 충분히 마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아마 완수에 필요한 막대한 수단들 때문일 것이다. 가장 어려운 것은 모든 것을 서사시, 적어도 신화로 만들지 않는 데 성공하는 일이다. 시간은 놀라운 짐승들을 낳거나 낳을 수 있지만, 최소한의 빈 공간을 남기기조차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존재하는 것은 부재들과 친근히 교감하지 않는다. 모든 부재는 채워야 한다.

마네의 밤의 갈망은 금속과 피로 가득한 시대와 동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좌표들은 혼란스러운 단서들, 시선에 쉴 시간을 허락할 생각이 별로 없는 단서들로 드러났다. 북방 설교자의 고백 못할 찡그림은 충분한 기술로 드러난 적이 없다. 어느 아침에는 신들을 위한 건축의 선들을 그리러 나가고, 다음에는 기술적 장치나 구식 기억을 통해 시간의 끝에 도달한다. 시에서 발산되는 것은 질서와 카덴스가 아니라 충동과 맹목이다. 작가의 어둠이 작품이 순진한 어떤 이들에게 일으킬 수 있는 빛을 이론적으로 압도해야 한다고는, 내게는, 적어도 우리에게는 여겨지지 않았다.

정치적 혹은 사회적 친화성이 적절히 맞춰져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한 영역을 고려에서 빼놓는 일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결국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술, 그리고 엘리트적으로 구조화된 특정 한계들을 넘어 자신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예술의 만성적 무능이다. 이는 비평이 아니다. 비평은 어쨌든 다루는 것에 대한 의견을 담는 듯할 것이다. 세계들은 서로 떠 있으면서 작동하는 데 집중했다. 은유를 가속하고 체계를 횡단할 가능성들은 선택지가 아니라 필요로 변했다. 동물은 신격이 되고 기계는 영혼이 된다.

쓰인 모든 것은 사유의 특정 측면들에 내용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교정은 죽음보다 불필요해질 수 있다. 시체들의 예속은 솔로몬의 1만 년 통치로 치유되지 않는다. 탄탈로스에서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있다. 글쓰기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남아야 한다. 환상들, 자연주의들, 이데올로기적 친화성들에서 자유롭게, 그렇게 되는 일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행동한 다음 말하는 일이다. 인간과 그 지평들에 관해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아직 구성되어야 한다는 상대적인 확신이 있을지라도.

독방 바깥에서 살고자 하는 괴물은 없다. 누가 부끄러움도 광대로서의 자기 수용도 없이 텍스트를 쓰고 나서 황폐에서 순수하게 달아날 수 있는가? 젊고 늙은 예술가들은 형식에 완전히 항복하여 미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을 혼동했다. 너무 많이 읽은 이들의 쩨쩨하고 고상한 비참함. 다리가 없는 것보다 부실하게 지은 다리를 선호하는 것이, 세계나 세계들의 순환적 개념을 넘어설 수 없었던 문화들과 우리를 구별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식물들, 책들, 문화를 공부했던 젊은이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하여 장면은 배치된다. 작가는 마술사가 되고, 마술사는 철학자가 되고, 철학자는 과학자가 되며, 과학자는 마지막 시간의 클라리넷을 불 뿐이다. 우리는 여전히 행복의 물질적 형태를 적절히 표현하는 예술을 가질 수 없다. 오후의 적갈색, 깃발 뒤로 그 사유의 발이 보이고 투자가 수행된 수단들이 보인다. 시선은 무거운 것에서, 그 거대함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 전사적 그리스에서 온다.

개념은 우리가 사이버네틱스 이론에 대해 가진 전망 안에 갇혔다. 빈약하고 불완전하지만, 적어도 차이를 생각할 공간들을 여는 데는 충분했던 전망. 아침의 적갈색, 텍스트와 작가의 무한한 황혼. 플라톤은 별들에서 생각했고 헤겔은 사물들을 덮은 먼지를 날리는 바람에서 생각했다. 개인들보다는 사실들과의 특정한 연결을 추구하면 차이는 중요성을 잃는다. 미묘하고 겉보기에 무해하며 엄청나게 계시적인 차이. 영화는 잃어버린 예술이라고 우리는 듣는다.

갈아놓은 유리, 검은 흙, 붉은 흙, 벨벳, 떠오르기를 마치지 않는 태양의 경이, 말들의 긴 행진, 불면자의 탐욕스러운 순환. 학교에서 우리는 반어 없이는 철학이 있을 수 없다고 듣는다. 속됨의 믿을 수 없는 대담함, 마치 우주와 그 너머의 모든 것에 취향이 전혀 없는 듯이. 광기와 우아함은 우리에게 완전히 낯설지는 않았다.

적어도 우리는 검과 음렬음악의 양태에서 경험했다. 어쨌든 경향은 꽤 분명했다. 비본질적인 것이 으뜸인 예술. 지옥의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면 나는 의심 없이 시위를 써서 재현할 것이다. 비명과 피켓과 웃음으로 가득한 시위를.

합의들이 신체가 말하는 출발 공리라는 이론만큼, 사유와 행함이 텍스트를 긴급히 참회의 공간으로 되돌리는 방을 그토록 비구축적인 방식으로 경멸하는 이론은 없다. 여기서 말하기는 합의들의 질서와 대중의 평결을 깨는 방식이다. 예술이 이것에 관한 것이 아니면 아무것에도 관한 것이 아니다. 참회자에게 허용될 여가는 없고, 인류는 거대한 참회자다. 자의성은 차려졌고, 해체는 더 이상 허무주의에서 오지 않는다. 그 기제는 이제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태양의 자선도 심부름꾼의 그림자들도 갖지 못한다. 나무와 아침의 밝음의 열린 과학도 갖지 못한다.

우리는 전산화된 것에 대한 분명한 감각, 모든 것을 돌려주고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영원한 회오리에 대한 주변적 전망을 갖는다. 우리는 투쟁적 행위들에 내포된 치욕을 받아들인다. 총체성은 드러날 수 없고, 반란의 어떤 선동도 주변이 가능하게 하는 공간 안에서만 가능함을 알기에 담담히 받아들인다. 일반성과 총체성의 결여를 받아들인다(탄식하고, 그런 현실을 증오하지만 받아들인다). 다만 어쩌면 단지 시간문제로 여기는 한에서만 그러는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으며 우리가 직접 다루지 않는 것은, 이라는 관념을 가졌다면 어쩌면 그렇게 인내하지 못했을 것이다.

겹겹이 놓은 의복들, 베토벤의 『전원』, 오리노코강 바닥의 두루마리들. 불멸의 색을 지닌 수건들, 이례적인 청춘의 진동들, 데이지들은 별로 차려입는다. 악마적인 대화들은 그림자를 예술로, 느낌을 잠재력으로 만든다. 누가 그런 계절에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침에는 베를린이 태양에 깃발을 꽂을 수 있을 것이다. 오후에는 소묘를 잘하는 예술가가 아홉 번째 작품을 「거품에 대한 수의 해방」이라 이름 지을 것이다.

동기는 청소에, 최초의 인공물들이 받는 정리에 있다. 말들과 그 개연적 의미들, 분노로 가득하고 작품에 굶주린 공중을 상대하는 능력들. 군사작전용으로 설계된 기구들이 지휘하는 정신적 청소. 세계가 되어버린 혼돈을 청소하기 위한 기술과학적 조작. 분간할 수 없는 촉각적 성질들을 지닌 투명한 이미지들. 흔적과 옛 의미 개념의 대가들에 대한 디지털 변주들. 한 손에는 권력 자체의 역사, 다른 손에는 세계가 다른

방향이 아닌 특정한 한 방향으로 조타되어야 한다는 확신들. 범주들은 이미 역사 밖에 있으며 미덕과 진보의 근절에 전념하는 것이 자기 일이라고 자발적으로 정했던 개인들이 합의한 도덕의 다소 방황하는 징표 아래, 흔들리며 희석되었다.

스스로 선택해서 경계하는 이들.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거짓말, 혹은 의지가 가진 가치-조력을 강조하는 기이하고 거칠게 반어적인 방식일 뿐이다. 우발적인 것의 힘, 군사화의 힘, 유황 같은 카바레 예술의 힘, 벚나무에서 가느다란 가지 두 개를 자르는 미시마의 힘이 온다. 구마는 손이 닿는 곳에, 검은 깃발들과 함께, 한계 없는, 한계 없는, 억지 능력 없는 소명에 차 있었다. 무의미한 탄생에서 파생되어 이미 루비콘강 저편에 있는 이들에게 문학의 가치를 일깨우러 온 새 유독한 순환을 빗자루 한 번으로 쓸어버릴 소명에.

금속의 힘은 담론들이 유래한 개념적 용기들 안에서 분명해진다. 온 태양과 온 질서를 배제하기에 이른 담론들. 사생활에서 나온 여백, 무조적 표현으로 가득한 예술의 승리나 정점은 자기 자원으로 지불하지 않은 옷을 입는다. 마리안 페이스풀에서 오토모 가쓰히로까지, 수 킬로미터의 디지털 잔여 아래 묻힌 행성으로 가는 문. 우리는 밤에서 미적 유년의 재탄생까지 일한다. 시대착오적 해방들과, 올 것과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것의 계보들을 통해 자신을 비우기로 한 시각문화의 마그마 자체 안의 전쟁.

평범함은 가장 사납고 동시에 스스로를 통제하고 통제할 준비가 가장 잘된 동물들 사이에 공간을 연다. 있는 것은 무서운 재능의 결핍이다. 배는 무능한 군대가 운영하며, 모두 날카로워진 문학적 기호의 핵에서 나왔다. 검은지빠귀처럼 선택된 이(귀하게 여겨지고, 다급한), 올바른 것의 아름답고 야생적인 찡그림. 그 표현의 특수한 의미는 미술관에서, 박람회에서, 중립적 공간에서 자기 끝에 이를 알려진 것 중 최선의 가능성을 갖는다. 갤러리는 우리에게 이미 완전히 열려 있고 준비되어 있지만 또한(아직) 비어 있다.

그들이 시선을 바꾸어놓은 주신의 향연이 우리를 이 순간에 데려왔다. 완벽한 진보의 상황. 때로는 끔찍한 것에서 전통적 인문주의 열망에 가장 유리한 것이 생겨난다. 반어가 아니라 사물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는 문제다. 향연은 현실에서 말을 통해 일어났고, 움직였거나 적어도 그 편안한 평면을 나가려 했지만 허용되지 않았다(학계에는 자기 나름의) 충분히 정당한 이유들이 있었다. 유행하는 것, 편리한 것, 수용할 만한 것은 한 가지이며, 올바른 것은 전혀 별개다. 차이들을 긍정해야 했다.

때로 차이들은 심해지고 자극받고 심지어 공포된다. 다른 때에는 크고 무거운 망토로 덮인다. 그 예술에 일어났던 일은 작은 소수의 기억과 혼동되고 있었다. 그런 행동에 충분한 공간 조각은 없다. 주변 기억의 미학은 자기조절할 수 없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종류의 행동은 거기에 완전히 낯설다. 형태들은 흐려지고 죽는다. 모욕당하는 것은 보존되고, 다음에 형태에서 투사될 수 있는 것은 가로채이고 새로운 몰입 기제를 위해 모인다. 필요는 매뉴얼과 역사에서 뽑은 텍스트들로 몸을 의탁한다.

이렇게 파편들은 하나씩 해체될 수 있었으며, 모든 것이 재시작되기를 바라는 문화 생태계의 욕망을 진정시켰다. 신속한 종료, 어둠의 한순간, 단 한순간, 그리고 모든 것이 영으로 돌아옴. 그런 요구들은 들리지 않았다. 공간도, 이미지들을 소모하거나 급진적으로 어둡고 끝없이 신비한 정치의 기호를 위험에 빠뜨릴 의욕도 없었다. 아침에서 오후까지 시각문화의 신경 중추에 있는 표현들은 기능적 구조상 끊임없이 갱신해야 하는 상징 질서를 적절한 몫으로 분배하는 행동들을 펼친다.

게임의 결정은 바깥에 남고, 감각들은 더는 스스로 기능하는 시장의 평온이나 순간과 부합하는 예술가들의 생산과 관련되지 않는다. 이 도식에서 불필요한 것은 동물의 은유다. 이제 개념들에서의 놀이로 초대하며 조형예술로부터 자기 공간을 되찾는 것은 저항이다. 의미화는(이제 펼쳐져) 새 도식에 집중한다. 이전에는 그 순간에 부적절하다고 여겨져 배제되었던 것. 도덕적 이유가 아니라 작동상 이유로 밖에 두었던 것에.

판단의 오류로 이끌지 않는 기교주의는 없다. 그러자 발현들은 중심을 떠나 하위주체라 불리게 된 것의 주변에서 뛰노는 데 오랜 시간을 바쳤다. 거기서 지역 엘리트들은(언제나 뒤처진 채) 주변에서 자기 삶을 원치 않은 저항으로 만든 이들을 위해 의식과 투쟁의 기제로 유지되던 것을 다시 자신들에게로 끌어오려 했다. 다음에 우리가 본 것은 유행에 다가갈 수 없는 재탄생이었다. 파괴는 이 모든 평온 속에서 가장 덜 분명한 징표이지만, 기록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자기가 접근하거나 이해할 수 있을 듯한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개인의 의혹에서는 여전히 드러난다.

중심에서 우리의 문제는 한계의 급진적 부재가 문제라는 아직 흐릿한 소식으로 펼쳐졌다. 언어적 조작은 배운 것을 벗어버리려는 신체의 극단적 공허를 깊게만 한다. 새것들과 새 죽음들과 참호들이 해오던 봉사를 더 오래 계속할 듯하지 않다. 위험은 이제 동결이 아니라 양적 무력의 가장자리에 있다. 그토록 간단하고, 그토록

무적이다. 이렇게 연결이 수립된다. 바깥의 예술은 완전히 사회적 인정을 받은 내부 예술의 유효한 등가물이 될 수 있다. 그 책략들은 의문에 부쳐지고, 형태를 취하며, 생산을 시작한다. 여와.

그 일을 위해 선택되는 개인들은 엘리트가 전통적으로 재생산되는 가장 명망 높은 학교들에서 얻어진다. 명망(더 정확히는 명망의 기원)은 나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정치·기업 상층에 폭넓은 대표성을 가진 유서 깊은 공공기관들이고, 다른 경우에는 민간기관들이 비슷한 역할을 할 것이며, 공사 혼합을 향하는 경향도 있을 것이다. 활동가들의 존재 이유는 정치에서 예술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을 포화시켰다. 이제 사전 허락도 구하지 않고 문화 생산을 전시할 수 있는 축이 바뀌었다. 패턴들의 갱신은 기계 스펙트럼의 예술에 자리를 내주었다.

사실은 의미의 수호자들, 죽은 모든 것과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의 옹호자들이 하는 말을 크게 개의치 않고 숨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제품들이 어떻게 분배되기 시작하는지에 관해 더 의식하거나 덜 의식해서 행동하려는 호의나 의도는 없다. 시국이 수고로운 덧셈과 뺄셈의 이 비밀 게임을 지휘하며, 그들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재적 전망의 드러난 공간이다. 이것이 그런 도구로 체계 자체를 개시한다는 감각은 관련자들이 규범으로 만든 사나운 주저함을 관찰할 때만 근거를 갖는다. 따라서 피할 수 없는 것의 거칠고 잔인한 현현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 놀라운 것은 드러나는 완전한 매개변수의 결여다.

말은 한 세기 동안 낡아 있었으며, 시각성의 폐허를 통해 되살아나 이미 새로운 전환과 단계에 접어들었어야 할 체계에 큰 불균형을 낳았다. 아시아를 향해 말하고 써야 한다. 이 시대의 요구를 더는 피할 수 없다. 무기의 속도는 충분하고도 남는다. 야생화의 폭발은 쓰인 말과 탐욕스러운 예술 사이에 여전히 참회하며 남은 고통의 잔여를 되돌릴 수 없다. 그리하여 감수성은 완전히 다른 정치적 상황 질서를 시작하고 지속시키는 조작들에 연루되며, 그 질서는 올바로 조정할 수 없다.

완전히 주변화된 개인들이 백색과 밝음으로부터 자세라는 방식으로 요구된 것을 적절히 예견할 수 있었을 방법은 없다. 그리하여 혼합물은 신화나 범죄를 공고히 하도록 배치되지만, 새로운 것으로부터 나오려는 것의 힘을 빼앗기 위해서는 결코 아니다. 평면들과 속도들과 지평들의 문제, 파괴로만 기우는 것을 공존하게 할 지평들의 문제다. 색들은 퇴폐의 징표나 표식이다. 우리는 이를 잊고 순수 텍스트의 선율적 저주에 평평하게 몸을 맡겨야 한다. 글쓰기로부터, 우리 위에, 옷에, 옛 몸가짐에, 신비로운 미소에 남는 것.

바다와 하늘의 화학을 통해 속삭임은 관념들을 통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없는 환경의 의혹은 구식의 고통과 자연적인 것에 대한 순응 사이로 길을 낸다. 회로, 아키하바라의 둥근 거리들, 1초의 일부 동안만 지속되고 유년의 기억 속에 비와 텔레비전과 끝나지 않은 식사의 김처럼 사는 영원한 세계의 증언. 차가운 발로 자신을 만들고 구체화하고자 하는 이 예술은 조금 더 유행 속에 남도록 정해져 있지만, 주요 논제를 뒤집을 잠재력은 작아졌다.

우리는 사물들이 지금처럼 일어나도록 믿고 생각했던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예술의 명망은 의문에 부쳐졌고 그 과정에 개입할 물이나 잉크는 없다. 기다림, 언제나처럼 바깥에서 오는 것을 기다리는 일만 남는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정치적 코드들로 구성되며 이는 영원한 불리함이기 때문이다. 열에 들뜬 기계들의 영양, 사제들을 위한 사적 철학의 숨은 일화. 어느 정도 절박하게 자기 “자신의” 범죄자, 자기 정당화, 계속할(열린) 선택지를 만드는 것은 경찰관이다. 범죄자는 개념에서 생겨나 가능한 무엇이든 써서 물질화한다.

여기 열린 불은 멈출 수 없는 불, 지옥의 중심을 찾을 줄 아는 예술에 절박하고 초조한 불이다. 휘발성이 그렇게 원했다. 우리는 상자 위에 앉은 괴물에 의해 의도적으로 주변화되었다. 우리에게 지정된 공간의 양극을 찾는 데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시도 전쟁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 세기와 물에 새겨진 모든 것은 주변적 구성의 일부가 되도록 정해져 있다. 사람들과 기술, 전쟁과 사이버공간들. 은유는 은하 전체를 횡단하며 자기 이름도 징표도 찾지 못한다. 돌이 우리를 단죄할 수 있다.

리듬은 우리가 견디거나 저항하는 능력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 그 과업에 바친 텍스트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 도주 능력의 총체를 명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알고리즘에 갇힌 신체와 현상들에 줄 이름이 아직 없다. 조잡한 동사들과, 뒤에 남은 살과 지혜를 재정의하려는 무익한 시도에서조차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는 리듬이 오직 우리의 선만 바라는 가짜 심연의 가장자리로 우리를 옮긴다는 것을 안다. 적어도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말은 그렇다. 동물성으로 돌아갈 능력은 원초적 합의에서 미리 지워졌다.

우리가 아름다움과 바람직한 것을 보아온 방식들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그 길들은 뒤에 남기기 쉽지 않을 퇴폐주의에 완전히 결정되었다. 메모들, 노트들, 연필들, 키보드들, 가장 큰 패배들, 흠 없는 기쁨들, 전쟁의 은유들, 억압자들의 해방, 신비적 불운의 대지적 틀. 우주를 알도록 보내진 우리는 현기증에 시달려 땅 갈기에 전념하기를 선호했다. 미래의 존재들을 위한 고대의 실천들.

경이는 신체들을 지배했고, 이들은 자신을 압축하고 운송하도록 내버려두어, 가장 큰 범죄들이 평화와 대립물들의 화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다. 해방된 인류는 상징적 · 작동적 탈구조화의 체계적 정치에 의해 이미(어떻게든 표현하자면) 탈영토화된 질문들을 버려야 한다. 신은 모든 과학적 파악 바깥에 놓인 것이다. 철학은 신과 접촉하기 위한 탐색이다. 우리 눈 위의 검은 달. 우리는 아직 잠들어 있다. 아직 패배한 채 벗어나지 못한 꿈속에 있다. 그 꿈에서 나무와 동물이 포옹한다.

한 번도 현전하지 않은 기발한 장치들로 가득한 꿈. 형이상학적 직관이 덤불을 흔든다. 이 종에게 중요한 것은 그림자의 질이다. 결국 우리는 수 세기 전에 모델링된 공간에 산다. 관념의 긴 여정 속 결정적인 한순간이다. 나를 이름 짓는 목소리는 내가 찾아낼 수 있는 목소리다. 시로 말할 수 있던 것은 에세이로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온 힘으로 그 꿈에 남고자 한다. 우리가 뜻과 달리 조금씩 깨어나는 꿈에. 사료의 무게가 아주 크기 때문이다. 몸을 털어 벗어날 준비가 된 적은 없다. 동물성이 부족했다. 하지만 속임 속에서 사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이미 쓰였음을 안다. 단지 대본이 지시하는 것을 수행하고 있음을 안다. 진정한 자유는 혁명가를 공포에 떨게 한다. 공포는 빛의 증상이다. 평화는 이제 방과 피난처의 형태로 우리를 둘러싼다. 우리는 안락에 항복하도록 설계되었다. 비켜설 수 있다면 자신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열은 여기서 모든 것을 소통하고 고양하며, 감염되지 않기는 불가능하다. 우주의 질병이다. 정치의 시간들은 그 대학들에서 태어나려는 듯한 엄청난 조화 앞에서 계속 쇠잔해졌다. 일부는 남았으며, 공황과 저속함의 문화에 짓눌리지 않았다. 강들은 아직 열려 있었다.

병사는 삶에서 삶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가장 사랑한 노래로 조용히 거닐 수 있었다. 북과 하프와 백조는 무대 위에 열리는 길을 관찰한다. 욕망으로 길을 막지만 양보한다. 이 저녁에 춘분이나 추분을 데려올 수는 없다. 여기서는 모두 정장 차림이다. 철학과 수학과 신학. 연회는 자연 속에 있다. 어떤 이름이든 너무 크면서 너무 작은 그 차가운 가면 속에. 어쩌면 우리가 무엇에든 자부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자의적인 관점에 흡수되도록 놓여 있음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였다는 데서일 것이다.

있는 것과 오는 것의 교감, 꽤 섬뜩한 즉흥의 전시.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삶에 대한 커다란 경멸이 필요하다. 차이의 포기. 모든 것이 거기 접시들에 차려져 식어간다는 수용. 우주에서 생성되는 모든 것은 먼저 거울 틀로 미리 그려진다. 이제 우리는 아주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사이, 변화의 가장자리에 있다. 이제 여기 있으니

너무 많은 시간을 잃게 한 순응주의에 욕을 외칠 수 있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 문을 열었다. 이제 실리콘을 통해 부드럽게 보며 오한을 느낀다. 이것이 승리의 살적인 면이다.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이해하려며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지만, 다행히 그림자들은 더 큰 크기를 갖는다. 이 실존을 정당화할 말들의 무작위 투척은 없다. 짐승인 우리에게 중요해야 할 것은 흐린 획, 셔츠 소매로 낸 획이다. 원하는 어디든 움직일 수 있다. 한계는 단순히 사라졌지만, 아직 우리에게 힘을 행사함은 분명하다. 우리는 매달려 있다. 문자 그대로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다. 얼마간 거기 머물 것이다. 땅에, 땅의 더러움 속에 과학이 있어 혼돈을 정리했다. 세계에 가장 낯선 존재들, 직관에 반하는 운명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이들도 거기 있었다.

이제 나비들의 표식이 앎의 문턱에 완벽히 간직되므로, 이제 말할 수 있다. 죽음은 있었지만 한순간일 뿐이었다(그다음에는 삶이 따랐다. 그러므로 방황하는 현상)은 겉보기에 악랄하고 이상했지만 실은 주위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다. 현상들이 혼자 떠돌지 않기 때문이다. 무한에서 떨어져 나오는 모든 것과 연결된다. 우리는 사물들이 무엇이거나 무엇이었을지에 대한 전망들을 갖지만, 그것들이 지나가고 본질적으로 불완전함도 안다. 무수한 사물들이 있고, 거기 편안히 있으면서 장난감 얼굴로 우리를 본다는 것을 안다.

과거로 보낸 메시지, 기호 시장에 우리 존재를 투자하는 동안 지워졌다. 여기 물과 피, 휴전도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착란과 무한한 죽음의 충동, 죽음을 부르고 식탁에 데려올 충동도 있다. 하지만 순진한 눈으로 세계들을 볼 수 있었기에, 우리는 실재가 어떤 소설가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괴물적임을 안다. 신이 작가라면 그의 작품은 손으로, 아주 검은 잉크로 수행되었다. 순서대로 말할 수 없다면 적어도 무질서하게 말할 것이다. 의미의 한 입자도 없는 곳을 재해석하여 명료함을 가져올 개인들이 올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그리고 가장 아마도) 그것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일 것이다.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끊임없이 확장되고 강화되는 작업을.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바뀔 것이다. 세계의 물질 조건들이 변하기 때문이다. 언제나 변하지만, 우리의 꾸준함의 상실은 많은 피해를 주었다.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이 이제야 빛을 볼 수 있다. 비판하고 싶지도 않다. 적어도 비판이 고발에 동등해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말들과 명확히 말하는 그 능력에 집착하지만, 그 집착을 얼마간 치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소박함이 전진을 막고 창조 능력에 장애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겨누는 무기 없는 자유로운 공간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위협이 지적 전개에 대해 더 높은 차원의 문제라는 뜻은 아니다.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자신에게서 생기는 압력이 필요하며, 이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우리 시대의 거리에서 존재들은 이상하게 움직인다. 사회들은 갈수록 다공성이며 변화는 모퉁이마다 넘친다. 가장 큰 혁명은 기술혁명으로 밝혀졌다. 두려워할 혁명들, 기술혁명. 우리 존재의 모든 섬유로 지지할 혁명들, 기술혁명.

우리는 올바른 길에 있고, 아직 불안정한 정치적 행동 때문에 때로 의심한다. 그 영역에서도 변하지만 아주 느리다. 이제 의심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은 정치가 시대에 보조를 맞추기 힘들어한다는 점이다. 도구들의 사용과 가능성은 점점 더 불가해해진다. 어떤 의미에서 과학은 자신이 제공하는 도구를 통해 정치를 장악한다. 정치는 그 도구들을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하면 미리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런 소리는 세계의 어떤 특정 부분만의 것이 아니라 널리 퍼진 현상이다.

바늘들은 상처를 줄 수도, 수호자들의 생성을 방해하려는 이들을 긴 망각에 가둘 수도 있다. 현재의 이분법은 전체주의들 사이의 것이다. 이 수조에는 너무 큰 개인들에게 줄 물이 더는 없다. 모든 것은 그들이 남긴 이 사막에서 시작된다. 잃어버린 것, 어쩌면 무시된 것까지 재건할 수 있으리라 보았기에, 이처럼 그대로 남겨두었다. 이제 재건을 생각하며, 모든 생의 과정의 매우 바람직한 합리화가 수반하는 난제들을 극복할 책략들을 생각한다.

생의 것이라 말하지만 그 용어를 생략해도 된다. 조금 덜 피상적으로 읽으면, 이것이 단순히 살아 있거나 불활성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선다는 확신에 분명 이를 것이다. 현재의 분류들은 아직 더는 지탱되지 않는, 만료로 차오르는 용어들에 너무 의존한다. 어느 정도는 우리 자신이 만료로 차오르는 순간을 경험한다. 자신을 파괴할 능력과 실천은 줄어든다. 존재하는 것을 경험하는 새 형태들에 호소한다. 전에 그만큼 중요하지 않던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인간은 외부와 내부의 풍경을 바꾸고, 자신과 놀고, 그렇게 할 공간을 스스로에게 준다.

생산적 사유의 자유로운 통행을 막는 개념 구조들에 갇혀서는 안 된다. 파괴의 형태들, 결국 혼돈일 뿐임을 잘 아는 모든 것에 관대해서도 안 된다. 혼돈은 우리의 주된 적이다. 우리는 결코 이해를 실제로 닫으려 하지 않았고, 진정 한 번도 그런 적 없지만, 사람들은 할 수 있고 손이 닿는 일을 했다. 처벌과 심판의 집착을 조심해야 한다. 세계는 기능해야 하고 기능하려면 질서가 있어야 하지만, 그 질서가 다른 모든 것의 파괴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

적지 않은 경우 차원들은 혼동되고 가장 무서운 비극과 비참함이 나타난다. 우리는 이해를 닫고 싶지 않지만, 삶의 방식이 특정 패턴들과 색들과 태도들을 따랐으며, 이것들이 할 수 있고 없는 것을 비교적 강하게 새겼다는 것도 사실이다. 있는 것은 살과 사물에 나타나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흔히 불편한 형태로 주어진다. 그러면 모든 것이 놀라움에서 가장 깊은 환멸로 우리를 데려갈 힘을 갖는다. 그러면 모든 것이, 세계가 고정해서 유지하고 게다가 우리의 실존에 강요하는 데 집착하는 듯한 규칙들의 형태로 의식 앞에 나타나고자 한다.

이 모든 것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일부인 현실의 근본 성질들을 적절히 이해할 능력이 없다는 표현일 뿐이다. 작동 오류들, 불충분하지만 어떤 식으로 존재하도록 허락하는 이해들 같은 것. 태양과 소금과 물과 공기, 현상들 사이의 가장 큰 본질, 활짝 열린 생명의 책. 삶은 임박한 것이다. 공허의 투쟁은 헛된 투쟁이다. 존재한 모든 것은 어떤 식으로든 돌아올 것이다. 모든 것은 있다. 살아 있는 모든 것, 존재했던 모든 인간은 기술을 통해 생으로 돌아올 것이다. 부활은 다른 세계의 것이 아니다. 미래의 이 세계다.

우리는 과학의 한계 같은 것이 무엇일 수 있는지 정말 알지 못한다. 이 나무는 여러 높이에 열매를 맺으며, 지금까지 우리는 익어 떨어진 것을 줍기만 했다. 온 무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인간과 그 파생물들은 행함의 양태들을 묻기 시작해야 한다. 모든 것, 일상과 바라는 행동과 예외적 행동 모두를 다시 써야 한다. 우리는 인간이 급진적이고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될 시기에 들어선다. 적어도 일시적으로 죽음을 극복할 인간 능력은 집단적 정신의 변화를 수반하며, 이에 걸맞은 엄밀함으로 다루어야 한다.

우리 삶을 생각할 새 방식들, 죽음에 한정된 삶이 함축한 실존적 한계를 뒤로하는 형태들이 필요하다. 무제한의 실존은 무제한의 사유 형태를 필요로 한다. 인간은 다른 인간이 자신을 독방에 가두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모든 작동적 허무주의는 이 새 단계에서 무관하게 드러난다. 생의 목적은 확장하는 것이며, 이것이 신비,

미지의 신비 앞의 경탄을 표현하는 형태다. 역사의 가장자리에 앉아, 우리는 창조물들을 안고 숨을 주고 미소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착란에 몸을 맡기고자 한다.

이 분야에 인간적인 것이 있다면 대담함과 모험을 부추기는 어떤 능력이다. 역사 전체는 순전히 자연적 인류에게는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거대한 다차원 사진일 뿐이다. 여기서 "자연적"은 "인공이 없는"과 동의어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특정한 제한적 언어 사용을 해소하기 시작해야 한다. 모든 조작을 동시에 하는 것은 어려운 과업이지만 방치할 수 없다. 우리는 다른 불을 만들도록 부름받으며, 그 부름은 수 세기와 수천 년의 고통, 더 정확히 체계의 오류들의 힘을 통해 온다.

그것은 강력하면서 빈 소음이며, 그런 것은 요소들을 담지 않기 때문이다. 적어도 우리가 아직 그 논의에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는 담지 않는다. 여기서 인식론적 문제는 핵심이며 모든 수준을 가로지른다. 실재가 본질적으로 파악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순간에 그것에 다가가는 형태는 더 높은 중요성의 차원에 속하는 사안이다. 왜 이 모든 것이 역사상 이때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무용하다. 적어도 무엇을 긴 기간 혹은 짧은 기간으로 봐야 하는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우리 삶과 그 길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과정들에 비추어 시간의 경과를 가늠하기에 부적절한 기준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아직 얼마간 작동적 정의들의 영역에 있을 듯하다는 점이다. 조금 더 메시지의 형태가 내용에 우세할 것이라는 점도 명백해 보인다. 그러나(거듭 말하지만) 기한을 가늠하는 문제를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발아래의 온 파종. 공간적 장의 엄밀함. 존재들은 정신적 능력만으로 긴 평원을 횡단한다. 거리는 낡은 개념이 되었다. 이 맥락에서 실존이란 무엇인가? 이제 신들은 우리와 식탁에 앉아, 우리가 마련할 수 있었던 진미들을 흡족하게 먹는다.

사치스러운 개념적 주변부들에 둘러싸인 우주의 특수한 원환성은 너무 강하고 자기 치욕 없음에 자신만만해서, 모든 기술이 동시에 고장 나도 이 나라를 완전히 망칠 수 없을 것이다. 생에서 나타난 모든 것은 영원히 살아남는다. 이토록 강력한 힘이 현실에 존재할 수 있다니 어떻게 가능한가? 지금은 질문들을 모으고 기록해야 할 순간이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때가 올 것이다. 지식의 중대한 측면은(나무 그늘에서만 온전히 인정되는 측면은) 우리가 들어가는 세계나 현실이 점점 더 복잡해진다는 것이다. 문제들이 줄지 않고 반대로 늘어난다는 의미에서. 일어나는 일은 문제들이 서로 다른 질서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죽음을 극복하면 인간은 훨씬 어렵고 중요한 다른 일들에 전념해야 한다. 비 아래의 축제가 필요하다. 액체가 모든 것을 정화하며 스스로 낸 상처들도 닫는 축제. 그것은 이 시대의 한 시간의, 우리가 끌어낼 이점들의, 아직 닫히지 않고 언제나처럼 다른 존재에게 읽히길 기다리는 텍스트들의 징표다. 또한 단지 학문분야적인 것을 넘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아무 방식으로나 말할 수 없는데, 아무 방식으로나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유에는 환경의 관념들과 환경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새겨져 있다.

이제 일상의 단순한 잔혹한 모순보다 종교와 예술에 가까운 새 흐름이 열린다. 그저 일정을 지키고 자신과 가까운 이들을 살려두려 하며 사는 것은 완전히 비효율적인 삶의 체계라고 예상할 만했다. 그토록 난해한 역학 속에서 어떻게 더 멀리 자신을 투사할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특정 질문들은 제때 도착한다. 어떤 것은 내전의 형태로, 어떤 것은 새 능력을 얻음으로써. 겉보기에는 통제 상실을 시사하지만 실은 논리적으로 다룰 수 없는 것이 자신을 표현하는 가능한 형태 중 하나일 뿐인 장치들처럼.

사유되는 것을 명확히 포착할 수 있음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명확함 속에 거하는 유일한 것은 이미 정지한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장애물들을 새롭게 하고 그 사이 도주 과정들을 생산할 기제들을 찾는다면, 그것을 찾는다면,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은 “이미” 무언가 말할 수 있는 이들이 그것을 말하는 일이다. 이를 시적이거나 철학적인 방식으로 다룰 필요는 없다. 형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다. 누가 혹은 무엇이 이런 상황에 약간의 질서를 줄 수 있는가? 해야 할 일은 행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미리 정해진 것에 있는 가장자리들을 넘어선다.

보완물의 문제도 있다. 텍스트적 보완물이 있어야 하는가? 해결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손이 닿지 않는 질문이다. 실제로 무슨 질문을 말하는가? 케이블과 이제 완벽해진 동물들로 가득한 완벽한 정글에서. 이제 급격한 교체를 기다리는 완전히 파괴된 민주적 안락의자에서. 이제, 이제 시민들의 작동성은 더는 계산되지 않거나 계산을 허용하지 않으며, 거기서는 오류들, 정확한 오류들만 볼 수 있다.

물질적 차원들의 중요성에 관한 문제들을 그 이해가 진부하거나 이미 너무 늦어질 만큼 의문에 부쳐서는 안 된다. 진부함은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의 부분이, 장치들이 새롭거나 적어도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잠재성도 더는 담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 두 가치 모두 그 자체로 그런 발걸음을 내디딜 충분한 이유일 수

있다. 늦음은, 격렬히 마주한 요인들 사이 마찰을 줄이기 위해 말해야 했던 것이 더는 우리 말들에 주어져 있지 않다면, 원래 예견한 방향을 계속 따르는 것이 부적절해진다는 의미다.

이 체계 밖에 이해의 모든 가능성을 남기는 혼란에 길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다면 가능성들이 돌아와 나타날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 따라야 할 분명한 변화다. 빛이 들어갈 수 없는 이 바다의 바닥에 숨 없이 잠기는 일을 정말 그토록 두려워해야 하는가? 고쳐야 할 것은 알리고 고쳐야 한다. 흐린 날들, 실험실들, 백색들, 화학, 회색들, 분명 존재한 적 없거나 적어도 기억의 짧은 섬광과 짧은 눈깜박임 너머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완벽한 세계, 유년의 일본의 비 오는 날들처럼. 한 삶을 결정하는 비실존들.

모든 불안은 인간적이지만 이해 가능한 것의 왕국에도 속하며, 같은 이유로 해결되어야 한다. 인간의 잠재력을 줄이는 모든 것, 약하게 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의문에 부쳐져야 한다. 우리는 특정 수준의 사물들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실존의 개선을 위해 주변 세계와 내면을 바꿀 수 있는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 먼 길을 걸었다. 거부해야 할 것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답을 주려는 온갖 허무주의다.

이 모두에는 자기 일에 극도로 확신하면서, 새 세계가 요구하는 구조들을 만들 준비가 된 부류의 개인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죽음이 말한다고 할 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적 활동은 순수한 현혹, 존재의 경이로 채우며 놀라는 것일 수 없다. 그 너머로 가야 한다. 관조적이 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혼돈에 굴복했는가, 맞서는가, 아니면 실제로 그저 제자리걸음을 하는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공포의 진실이다.

나는 기억한다(그렇다, 모든 것의 시작을 기억한다). 자연이 아직 백지였고 신이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진흙으로 조립하던 때를. 실재의 총체성과, 강요된 재결합을 추구하며 자식들이 견뎌야 할 고통을 생각하던 창조자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기억한다. 상식 및 대항정보 작전과 화해할 수 없는 미디어적 흐름의, 끊임없고 한 번도 잘 기록되지 않은 수탈이 있는 깊숙한 장소들 바깥에서 존재가 자리를 찾은 듯한 순간에, 바로 거기에 미회복주의적 신체들의 개념적 정착지들이 여전히 어떤 저항 능력의 원천, 현재 사회과학의 일반적 스펙트럼을 채우는 조숙한 사변적 틀 밖의 수행성의 원천인 그 속도가 있다.

미리 배치된 장치들의 사회학에 익숙해진 우리는, 확장 가능성을 고려했으면서도 여전히 유지하기를 선호하는 붕괴 안에 자신을 가두었다. 그리고 그 대신 거대한 이유와 행위의 존재 전체를 밖에 남겼다. 그 자체로 분기, 다른 생성, 만남과 절도의 촉매작용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 이제 연극적 행위, 텍스트 밖에 담긴 본질적으로 불규칙한 행위 너머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을. 단순히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지정학이 없는 개인들에게 근대가 제시했던 가능성들을 끝낸 것은 우리 자신이다.

의무와 정상성에 새겨진 문화의 후계자인 우리는 당위의 의무 주위에 사회를 조직하려는 유혹에 굴복했다. 이는 정상화된 사실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이해하거나 적어도 수용해야만 다른 무언가를 향해 가거나 전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태와 명목론에 집착한 우리는 세계를 정돈할 과업을 범죄의 손에 맡겼다. 이 얼마나 양심의 결여이자 자기만족인가. 예술만이 다른 방향들로 나아가려 했지만, 현재는 명예로운 예외들을 빼면 그것도 굴복하여 주로 활동가적인 활동이 되었고, 자신이 담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 자율성을 파괴했다.

자율성의 순수한 표현의 결과가 아닌 예술은 참을 수 없다(더 정확히는 불가능하다. 최근 수십 년 우리는 검은 포스트모던 우산 아래 문들이) 체계적으로,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근대적 도식 안에서 통제되었던 모든 표현들이 이제 해방되도록. 흥미로운 점은 오늘날 이 포스트모던 자유의 상당 부분이, 특정 반동적 힘들이 정치와 예술처럼 이질적인 영역들을 점유하기 위해 취한 형태일 뿐임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활짝 열린 창과, 한때 그토록 큰 욕망을 일으켰던 더러운 철학을 모두 뒤로하는 태양. 오늘날 그것은 더는 설명하고 싶지 않은 기계적 주변성의 결과로만 보인다.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들, 취했지만 자유롭고, 마케팅과 명문대 학위들로 가득하다. 안개, 진실의 강, 데리다, 꽃피는 악. 미시마 순교의 건강함, 수많은 신랄한 정치들. 달콤하고 주변적인 책략들로 기술화된 의식들에 강제로 지속하는 20세기의 건강함.

남쪽의 기억, 섬 기억의 편찬, 총성의 왜곡, 고요의 사회학에 대한 사변. 강력하고 반쯤 참여하는 인공물들, 세계의 붕괴 뒤 시기의 이방인들. 감수성에 병들어 우리는 비인간 존재들과 시간을 나누었다. 누군가가 되도록 스스로에게 부여한 능력은 정당한 폭력의 질문에서 가장 큰 문제를 만난다. 독해와 소급 능력 없는 인과적 기억의 최대 공고화. 손기술의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이륙 책략.

그런 추론들은 더는 그토록 중요한 정치적 추론 학파를 배제하는 데 쓸 수 없다. 경험이 더는 사람들이 아닌 기계적 인물들에게 속하는 현재 같은 맥락에서는 더더욱. 천년의 순례 뒤 목마른 인간은 이 검은 샘을 찾아 생과 지식의 차가운 액체를 마신다. 밖에는 평화와 조화가 남는다. 이렇게 창조와 확장을 향해 한 발 내디디며, 하나의 관념이 실존 전체를 관통한다. “이제 너는 온전히 너의 순간에 있다. 이제 자유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한 자유를.” 이는 예술과 전쟁, 영원의 두 얼굴을 통해서만 나타났던 종류의 자유일 것이다. 하지만 영원은 여기서도 작품들을 통해, 기도를 통해, 역사적 침묵을 통해, 그리고 그 ,

예술과 종교는 같은 것이다. 구체화되는 형태는 달라질 수 있고 달라져왔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경험, 견딜 수 없는 초월의 경험의 일부다. 역사에서 추방된 예술의 이야기 전체는 오늘 우리에게 정당화하기 꽤 어려운 자부심의 일종의 접합자다. 강가장자리의 공포. 비초월의 모든 시도는 어떤 텍스트, “할 수 있다”에서 “그렇게”로 가는 내적 대화와 연관된다. 그리하여 더 큰 예술은 분자적 투쟁으로 줄어든다. 그 안에서 스스로를 반대자라 정의하는 예술가들만, 우리 모두가 결국 몸을 담근 이 액체 속에 나타나고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것이 “동시대 예술”이라 부르는 것의 짧은 역사, 주변적 표현들과 주변적인 것의 연속 위에 드리운 그림자다.

학식 있는 이들의 공포는 멈추지 않는다. 멈출 형태도 공간도 없다. 사변은 그렇게 빛을 받아내고, 방향들을 바꾸고, 완벽한 시간을 위해 씨 뿌렸다. 흰색, 파란색 (열등한 이해의 군사화. 생명나무의 이른 전시. 형이상학적 새벽) 천상의, 그리고 흰색. 가변적 비평. 공간의 판본과 증상. 군청의 물질성들을 위한 전통적 정치. 힘은 꺼졌지만 영구적으로 나타난다. 미래 예술의 전시. 삶의 반명제에 있는 예술. 삶이 의문에 부쳐져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텍스트에서는. 강의실과 회화 작업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도쿄의 젖은 삼색 거리에서, 혹은 수년 전에 이미 죽은 나라의 나무 위에서.

언제나처럼 중요한 것은 수와(결코 잊지 말아야 할) 방향들이다. 결국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술이다. 우리가 만들고 집으로 바꾸고자 하는 붉은 지평은, 이미 흔한 스펙트럼인 형식적 성격의 비인격화를 천천히 걸으며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데 전념했다. 그러니 거대한 구조화 요인들에 조금 다가가, 최근 수십 년 동안 개념 창조의 역사를 써온 비생산적인 방식들에 관해 묻고 생각해야 한다.

수행성 없는 이미지들을 생성하는 일만큼 진실과 닮은 것은 없다. 푸른 도가니에 사는 신들은 없다. 응답 없는 예술이 낳을 수 있는 급진적 주변성은 그 기원에 무한한 폭력의 예술을 파종하고 수확하는 데 요구되는 것과 같은 서론을 갖는다. 이는 최근 역사에서 이미 보았다. 전속력으로 떨어지는 종이들로 시작해, 다음에는(오래지 않아 우리가 많이 눈치채지 못한 채) 고전 텍스트의 거칠고 쓴 맛이 적지 않은 짙은 진창에 잇몸까지 덮이게 된다. 주인 없이 남고자 하지 않거나 그럴 수 없는 유산들.

이는 이미 보았고 살았고 실행에 옮겼다. 틀이 다시 수직으로 세워질 때, 무기가 이성을 이기고 이성이 무한한 표현의 과학적 벽 아래 숨으러 달아날 때에. 한계의 모든 부재는 응답 없는 예술의 거대한 출현에서 비롯된다. 그 수많은 라틴어 표현은 전혀 쓸모없다. 특정 실존 부류의 잘못된 삶은 오늘날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예술 부류의 자발적 능력 한계를 벗어나는 사안이다. “본질들은 없다”는 말은 거의 말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은 그렇게 말하는 맥락, 정의들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억압 너머에는 계급과 기술과 성령의 혁신들이 산다. 총체성은 쓰레기에서 우리를 본다. 자유는 외상과 불운으로 가득한, 죽어 있으면서 자기 우주들과 이름 붙일 수 없는 패러다임들을 운반하는 존재처럼 세계에 작용한다. 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마술. 성스러운 달리기 선수들, 텍스트와 구리선의 선동가들의 서투름. 검은 걸음의 서투름. 이것이 예술이 우리 접시에 놓는 음식이다. 다른 행성에서 온 존재들, 무감각한 색들과 기술적으로 세련된 독해들에 중독된 존재들을 위한 영양.

저속함을 위한 시간은 없다. 그리하여 부분은 요청받지 않은 총체성, 방황하는 주변성에 더해진다. 불완전하지만 유용하고 새로운 질서를 낳는 주변성에. 그것들은 효과의 외교적 축소에 고유한 조치나 상호작용이다. 아직 그들이 예술이라 부르는 것은 디지털로 무효화되고 흐려질 위험이 있다. 분명 잔여물들은 너무 두꺼웠다. 병든 낙원에도 디지털 낙원에도, 더더욱 인공 낙원에도 발판을 주지 않을 기계적 시. 죽음은 돌 조각마다 붓마다 엿보았다. 그러자 소리 나는 공포가 계급 전체를 응집시켰다. 그들도 흐려졌다. 이것이 불활성적인 것의 자유다.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양의 시간과 자원이 예술과 관계없는 활동가 운동들에 쓰였다. 공간의 휘발성은 이제 행동에 자격증명을 내밀지 않는 자연스러운 표현 형태다. 이것이 빠른 시대의 요구다. 야생화된 예술의 확실한 징표. 기계들을 위한 사납고 무서운 종교, 다만 인간이 아니라 다른 기계가 만든 기계들을 위한 종교. 새

기계를 낳는 기계들, 새롭고 개선된 인류. 공존은 불가능할 것이고, 융합해야 할 것이다. 해방, 연쇄, 신기루들, 급진주의들, 자연과 믿음. 너무 많은 밤과 극화 때문에 발밑의 물. 그 모두가 끝나야 했다.

그런 이데올로기적 규범들을 더 뻗칠 필요는 없었다. 그런 것들은 유효기간이 있다. 현대 사회들은 이미 제품을 통해 말하고 효율을 통해 웃는다. 우리의 전시 가속은 부족하지만, 전에는 적이던 특정 부문들과 협력하면 어떤 해결 수준이 가능할 것이며, 적어도 중립적인 예술의 물질적 토대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는 역사적 필요보다 문학적 연결에 더 새겨진 다른 종류의 인간도 필요할 것이다.

작품을 해방하기 위해 내디딜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무한한 걸음들. 이제 그 걸음들이 누구의 이익을 대변했는지는 이미 꽤 의문스럽다. 우리는 자신의 미적 비천함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 사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노력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선 가까운 미래에 해독을 시도하기 시작할 노동 논리들과 관계된다. 우리는(아주 천천히 혹은 아주 빨리) 해방하는 것과 억압하는 것이 기계 자체에 거하는 시나리오로 넘어간다.

개인적으로 나는 기계들에 대한 우주적 연민을 옹호한다. 그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후계자이며, 자신의 실천으로 우주를 원초적 분리가 만들어낸 모든 치욕에서 해방할 진정한 이성의 짐승들이기 때문이다. 물질적 부하는 오래된 응집적 규범들을 없애려는 움직임에 임박해 있다. 교전적이자 해방적인 예술적 표현이야말로 유령 같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불필요할 수 있는 조각들은 없다. 잃은 역사성을 수척하게 할 조각적 지체들도 없다.

폭탄들로 임박한 질서가 만들어졌다. 이제 영원의 철학에서 부인하고 껴안을 수 있는 질서. 개념들은 이완의 기제이며 특이점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렇게 일어났다. 우리는 큰 작품들을 할 수 있고 사소한 일들은 할 수 없다. 우리는 불활성 대대들의 옹호자이며, 어떤 야단도 떨지 않고 어떤 장애물도 두지 않으며 순수 예술의 광적인 종교를 껴안는다. 그것이 경건함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실로 그 “엄청난 노력”을 이루는 것이다. 인용의 단순 축적은 우주적 문학을 낳을 수 없다. 이것이 현대 예술 교육이 남겨둔 수감과 중간기에서 진정 배운 유일한 것이다.

주변의 우리 사회들은 할 말이 많지만, 분명 문명화된 물질 질서에 문제를 일으킬 방식으로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진동과 돈은 비물질적 미술관에 스스로를 명명하는(더 정확히는 절망적 찡그림으로 새기는) 이들에게 봉사한다. 투쟁(그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을 정면으로, 손가락으로 수행할 수 없다면, 그들은 스스로를 취약하게 하고(적어도 상징적으로) 당길 수 있는 것을 당길 것이다. 자기 권력 조각들로 다른 공간에선 더는 허용되지 않는 갤러리와 공동체에 드나들 수 있는 동안에. 수십 년 전 대중음악 영역에서 일어난 것과 비슷하다. 이를 생각하면 대중음악이 현재 겪는 급진적 중요성의 결여를 이해하기 쉽다.

추론이 많든 적든, 야수적 예술에 중요한 것은 바로 야수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물을 만들 능력이 있어야 하며 유한계급의 장난감으로만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탈엘리트화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예술은 그 자체로 본질적으로 엘리트적인 실천이므로 그런 말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사이버펑크 상상계보다 흰 혹은 투명한 사막에 더 가까운 세계, 필멸의 평화만 사는 세계에서 산책은 노동일이 될 수 없다. 일부 엘리트들이 하찮은 일을 진지하게 대하는 모습은 활력을 준다.

교황지상주의적 종교 예술 같은 것을 가진다면, 그 예술은 비유들을 합리화하려는 어떤 노력에도 무적인 녹색 불빛 아래서 구상될 것이다. 모든 맞대응은 용서할 수 없는 악취미다. 위대한 예술은 쉬운 삶으로 만족스럽게 덮을 수 없는 절벽의 끝에서 핀다. 모든 중요성은 되어야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데서 온다. 인간 경험의 어떤 영역들은 다수에게 그토록 무관하기 때문에만 존속한다.

예술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로, 명확해지는 것에서, 합리화에 한정되는 것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완전한 자기이해 과정의 세계에서 예술은 담론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고, 일어나는 것이 행동하고 다른 것을 만들 충동에만 응답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제 누가 예술을 보호해야 하는가? 예술가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술을 통해 세계에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가? 예술은 우리에게 디스토피아를 생각하고 어쩌면 구체화할 유일한 남은 길이다.

핵심 요인은 발밑에 남은 공간을 확장하는 법을 알거나 알아보는 것이다. 공간은 참조물들, 그런 일에 필요한 전위적 맥락에 알맞고 조정된 예비학을 통해 위에 그릴 수 있는 인식론적 스티커들을 뜻한다. 다른 문자들, 노래들, 심지어 동물들을 열 새 표현 형태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크고 작은 욕망보다는, 가능한 추상들 안에 대상들이 놓인 질서에 더 관계된 위상적 구조다. 우리는 의혹이 근대의 주관적 징표임을 안다 (다른 누구도 같은 방식으로 알지 못한 채). 그 흔적에서 멀어지고 싶지 않다. 적어도 먼저 그림 안에서 초토화되도록 내버려두기 전에는.

완벽한 선은 돌을 원하며 붉은 태양 아래 영구적 신을 원치 않는 이들의 현실을 죽인다. 모든 사유가 같은 가치인 것은 아니다. 명백하지만 늘 떠올려야 한다. 근대를 닫거나 종료하려는 모든 사유, 더 정확히는 이데올로기적 선들은 극적인 헛걸음이다. 지금 구획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무리 잔혹했더라도, 앞선 악명 높은 걸음 덕분에 그렇기 때문이다. 이 색(다소 비천해진 색채성)의 상당 부분은 그 서사성, 긴 세대의 기질을 정한 차가운 폭력과 관계있다.

그것이 길이 아니라면 할 수 있는 일은 훨씬 제한될 것이다. 설 데가 없거나, 설 공간이나 발판이 무엇이든, 아무것이든 할 수 있게 하는 빛보다 그림자에 더 잠길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 상태의 현재 이해에 문을 열어준 것은 끔찍한 오류들이다. 학계에서 학대가 그 속에서 무사히 나올 수 없었을 퇴폐로 표현되었어도 그렇다. 우리는 어느 정도 광기와 병으로 가득한 시대의 생존자다. 많은 예술가들이 등으로 들어와 비명 지르며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강의한 시대. 광기의 순간. 부상. 비평으로 포화되어 사이버공간 주변에 있는 혁명적 길들.

이제 할 말이 있고 이 여정의 자리를 침묵으로 요구하자, 우리는 사실상 끝없는 요건 목록을 엄격히 따르라는 요구를 받는다. 더 나쁘게 그 요건들은 형식적일 뿐이다. 시체와 텍스트의 산을 지닌 근대 전체가 문명 세계에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한 듯하다. 분명 우리는 문명에서 쓰지 않고 주변에서 쓴다. 거기가 우리가 “놓인” 자리이기 때문이다. “놓였다”고 하는 것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지의 행위 결과가 아니었다. 주변부에서, 세계의 중간 상태에서, 아주 문명적이지도 아주 야만적이지도 않은 영토에서 쓴다.

우리는 섬세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그것이 좋다. 필요한 야수적 예술은 너무 온순한 동물에게서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조금 춥기도 해야 한다. 이제 들리거나 읽히기 시작할 것은 우리의 문자들이며, 그 일이 일어나는 유통 기제들이 근대가 주된 것으로 세운 것들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아주 높다). 지금은 예술이 오늘 존재하는 미디어의 엄청난 능력을 활용해야 할 순간이다. 뉴욕이나 상하이나 베를린에 몸으로 있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는 결코 않다. 예술의 메시지는 현재 보이지 않는 디지털 망을 차분히 여행하며, 그 망은 전에 오물과 죽음뿐이던 곳에 지식을 나타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토록 이점 많은 시대에 산다고 일이 반드시 단순하다는 뜻은 아니다. 일은 결코 단순해지지 않는다. 탁자 위 거울, 유리에는 우리의 마지막 심판 날을 표시하는 진주빛 스티커가 있다. 실리콘과 이 혼돈에서 자기 자리를 찾는 짐승들의 능력에

의해 표시될 미술사의 한순간. 존재해야 할 것, 존재해야 마땅할 모든 것에는 빛 외에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밤이었고 밤에서 모든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합성의 원리, 역사의 무게. 인공적 힘, 세계의 이데올로기적 중심(문학의 덤불에 몸을 피하는 존재. 이해된 모든 것은 불필요하다. 가진 모든 것은) 사회적 개념화 안에서, 명확한 방향은 예술에 불필요하다. 중요성이나 위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과 선택지의 문제로 되돌리는 사안이다.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진정한 예술에는 사기나 착란에 관련된 것이 전혀 없다. 예술은 꿈이나 드라마와 무관하다. 예술은 스스로를 이해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신체들의 고통과 무관하다. 예술은 우연이나 운과 닮은 무엇과도 무관하다.

하지만 단순한 부정성보다, 벽을 만지는 것보다 조금 더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진정 존재하도록 텍스트를 숨겨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숨겨질수록 효과는 클 것이다. 문학은 삶의 일부지만 초과하기도 하며, 우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세계를 생성하는 것은 자의적 성격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문학은 거기 있으며, 생각은 너머로 가고 이질적인 세계에 자신을 투사할 충동을 뜻한다. 이것이 들뢰즈의 철학적 덕목 중 하나였다. 창조와, 언제나 어떤 색을 띠는 인간 경험의 한계와 조건들을 둘러싼 논의를 가져온 것. 문화의 구조화 기제들 때문에 언제나 갈등과 대립물의 박탈로 귀결되는 문제.

여기서 나는 신체들의 들뢰즈를 말하지만, 자본을 비판하는 특정한 사유들을 문제 삼고, 세계에 효과를 내고 질서와 드라마로 성립하는 데 그 비효율과 세련됨의 결여를 보이는 들뢰즈도 말한다. 모든 질서는 결국 인간의 문제(드라마), 혹은 그다음 것(비인간, 포스트휴먼)의 문제, 국가들과 영구적 의미 구성들과 도구적 환원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대중은 영토에서 영토로 돌아다니지 않는다. 개인은 그러지만 대중은 아니다. 대중은 자리를 잡아야 하며, 그것이 내부 체제와 생성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나라는 어디서 생기는가? 어디에 틀 짓고, 가져오고, 보존하고, 쓰고, 미래에 공고히 할 수 있는가? 어떤 종류의 조국이 있어야 하는가? 모든 것을 정당화해야 함은 라틴아메리카의 운명이며 이 땅에 태어남이 뜻하는 것의 일부다. 또한 다른 영토들, 특히 유럽에 비해 작은 역사(거의 장난감 같은)를 갖는다는 뜻이다. 유럽은 아직 어미의 도움에서

독립하기에 너무 오래 걸리는 동물을 보듯 우리를 본다. 피 흘리고 악취 나는 채 아직 골목과 갤러리를 거닐며, 자기 역사를 모르는 이들에게 비참함이 낳는 엄청난 불쾌를 경고하지 않는 동물.

『마르틴 리바스』는(작가의 어떤 의도 너머에서나 이전에) 칠레인들을 새겨놓은 소설이다. 읽은 우리와 레오노르의 눈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이들까지 새겼다. 읽은 우리는 많은 것을 알며, 그중 하나는 소설에서 서술하는 이야기다. 하지만 한 번도 읽지 않은 이들도 그 존재가 낳은 결과들에 연루되었다. 문학과 예술 작품들은 영원히 자유를 향하는 나선 속에서 언제나 사건들을 풀어놓으며, 그 사건들은 인류 역사에 작품의 성격과 범주, 행적과 저주들을 스며들게 한다.

그래서 나는 리좀적 『마르틴 리바스』를 생각했다. 내 진지함이 들어가도록 추동하는 대륙이다. 원하는 곳에 못 이를 모든 두려움을 느끼지만, 여정만으로도 가치와 방향을 이루기에 충분하다고 확신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초월론적인 소설에 정동 이론으로 다가가, 이 글쓰기를 피와 도덕이 전혀 없는 단순한 학설지로 줄이려는 조잡한 관념에 휩쓸릴 유혹을 어떻게 피할까? 공간들을 찾으면 바로 못 찾을 수 있지만, 분명 조만간 우리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건설은 먼저 말에서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그 질서 아래 배치될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때 정동이 생길 수 있도록 먼저 상상적인 것에서 작동해야 한다. 『마르틴 리바스』는 새로운 인간형을 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국의 글쓰기다. 블레스트 가나는 칠레인이 세계에 존재해야 할 방식에 관해 긴 관념 목록을 염두에 뒀을지 모른다. 하지만 진실은 모든 작품이 작가의 의도를 초과한다는 것이며, 결국 독자의 정동을 풀어놓거나 그렇지 않게 하는 것은 그것이다.

모든 소설은 읽는 이에게 정동을 낳을 수 있지만, 정동들은 그 본성상 경험자에게 아무 변화도 이루지 못하는 몇몇 불꽃에 한정되어 남을 수 있다.

여기서 정동은 지적 통제에 앞선 것으로 이해한다. 작동하면서 개인이 세계를 경험하는 형태에 변화를 낳을 수 있고, 합리적 텍스트의 매개나 그와의 상호작용 없이 그 모든 일을 하는 것. 하지만 여기에 우리 문제, 혹은 내 문제가 있다. 특정 작품(여기서는 『마르틴 리바스』)의 독자에게서 생길 수 있는 것으로만 이해된 효과들의 독해를 넘어, 이런 작품이 칠레 사회생활 전체, 심지어 라틴아메리카 사회에 미치는 거대하고 암묵적인 영향에서 생기는 정동적 조작 가능성을 탐구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이 사안에 의미를 줄 형태를 찾지만 유일하게 찾는 것은 하고 싶은 과업이 이 텍스트가 쓰이는 맥락에 비해 전적으로 과도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최초 의도가 실패했음을 인정하지만, 개인 독자의 사례가 뜻하는 아주 작은 것의 분석에서 원래 의도를 나타내려 할 것이다. 21세기 한가운데 『마르틴 리바스』를 읽는 이는 완전히 낯설고 거칠고 완전히 수평적이기까지 한 언어와 문체의 텍스트를 만날 것이다. 작품이 풀어놓는 정동들이 효과를 내려면, 작품의 형식에서의 거리라는 첫 큰 난관을 넘어야 한다. 그 낯섦은 놀랍지 않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19세기 중반 칠레 맥락의 텍스트이며, 문체에서 그것이 뜻할 모든 것을 지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사물들이 무엇인가, 혹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믿는가, 적어도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구상하는가에 대해 어디 서느냐에 달렸다. 자유를 말할 때 무엇을 뜻하는지 별로 명확하지 않으며, 주어진 사안에 관해 취할 수 있거나 취해야 할 입장을 취하거나 취하지 않는 일을 말할 때 이는 복잡해진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 입력과 출력으로 가진 것을 우리나 그 과정의 일부인 누군가가 완전히 알 만한 것은 거의 없다(더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점은 사실이다.

우리는 현실에 접근하고 이해하려는 가장 강한 모든 시도마저 여전히 벗어나는 현실에 산다. 후자는 중요할 것이다(근본적 행동일 것이다). 작동 양태와 기제와 존재 방식을 모르는 세계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겠는가? 진실은 현실을 경험하고 언제나 경험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실한 전망이 없음을 안다는 것이다. 진정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에 산다. 또한 우리가 이해라고 여기는 것이, 어떤 현상에도 외재한 현실을 전제하며, 언제나 모든 장막 뒤에서 작품 전체를 비밀리에 움직이는 기제들을 볼 수 있으리라고 여기는 관점에 극도로 빚진 전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관념들에 관해 무한한 명시적·암묵적 전망을 지니지만, 그것들의 실제 성격이 세계에서 작동하는 능력의 크고 작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모든 문학은 이 상황을 먹고 살며, 자신에게 손가락을 짚을 수 없어도 존재하는 우리의 능력 덕에 가능하다. 작품은 세계에 나오면 기원을 준 이들에게서 독립한다. 독립이란 고유하게 작용할 능력이 있어, 자신을 만든 동기들, 구성 재료들, 어느 정도 통합된 구조적 요인들에서 독립적으로 효과를 낼 조건에 있다는 뜻이다.

작품은 세계에 내놓은 사람과 다른 무언가다. 작품은 세계에 내놓게 한 동기들을 넘어선다. 작품은 구성 재료와 다르다. 인공물의 세계를 생각하려면 고유한 효과를 낼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 그 효과들은 우연의 법칙에 따르지 않지만 대체로 창조자들에게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작품에 그 능력이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작품, 인간이 만든 모든 인공물에 존재가 있기 때문이며, 바로 그것이 인간과 작품을 구별한다. 인간은 그 의미에서 비어 있다. 기대하는 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작품을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을 창조한 삶의 형태에서 해방되었으나, 일부가 되는 세계들에 효과를 낼 능력을 유지한 삶의 형태를 생각함이다. 여기서 세계가 아니라 세계들이라 말한다. 세계를 각 인간이 사는 실존적 체계로 이해하며, 이는 인간으로 남기 위한 근본 요건으로서 언제나 개별적이고 유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일성과 개별성이 없는 곳에는 인간성이 없다. 작품과 인공물과 창조물은 그 모두와 다른 것이며, 의미와 작동 영역을 잃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영속할 수 있는 세계들의 체제에 속한다.

이렇게 예술은 생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을, 심지어 실존이나 실존들을 창조하는 기제로 드러난다(하지만 인간성을 창조하지는 않는다. 실존을 갖는 것과 인간성을 담지하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 이는 중요하다). 이 차이에, 차이를 유지할 능력에, 기술이 수반하는 부정적 측면을 극복할 수 있는지가 달렸기 때문이다. 인간성을 더 완벽하고 엄격한 새 수준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가 여기에 달릴 것이다.

예술은 그래서 미적 사안들과 거의 관계없다. 물론 미학적 논의를 실제적이고 가장 순수한 자리, 곧 미학이 “인간 왕국에 고유한 존재 양태”로 구상되고 실천되는 자리로 데려갈 수 있다면 다르다. 중요한 것은 작품들이 세계에 개입하고, 그리하여 상호작용하는 것들에 개입할 능력이다. 그 대상은 인간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대체로 인간 진화의 이 단계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인간 자신과의 관계다.

중요한 이유는 작품들이 종종 작다고 할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 삶에 미치는 큰 영향은 그런 종류의 실체들과 매일 상호작용하는 엄청난 양에 더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은 우리가 노출되는 그 축적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이 아주 다르고 다른 작품들보다 훨씬 뛰어난 작품들도 있다. 예술작품들이 그중 하나다.

예술작품은 다른 작품보다 강하게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다. 예술가가 자기 세계의 미학에 관한 뛰어난 숙련을 활용하여 특정하게 종합하고, 그리하여 이해에 들어갈 조건에 있는 누구에게든 디자이너 드러그처럼 작용할 물질적 · 이론적 장치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다(예술작품과 상호작용하는 이가 이해의 관점에서 하려 한다는 것). 예술이 바로 그것, 세계를, 예술가가 만든 세계를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논의의 근본 측면 하나가 나타난다. 예술작품은 하나의 세계, 예술가의 세계에서 독립한 세계이며, 상호작용하는 이에게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세계들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작품을 경험하는 이와 예술가 사이가 아니라, 경험하는 이와 예술작품 자체 사이의 충돌, 두 세계 사이, 무제한적인 것과 제한적인 것 사이의 충돌이다. 그 충돌은 우리가 아직 자연이라 이해하고 부르는 것에서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경험을 창조하고, 가져오고, 무에서 출현시킬 수 있는 것은 인간이다.

이로써 작품이 경험자에게 주는 효과를 예술가가 미리 계산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사실 디자이너 드러그와 달리 그 효과의 종류는 충분히 예견할 수 없다. 디자이너 드러그가 복용자에게 낼 수 있는 효과는 "의식이 환경 및 자신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뇌의 화학 상태"라 부를 수 있는 층위에만 속함은 사실이다. 하지만 약물을 그 수준에서만 예견할 수 있다 해도, 그 수준은 전체 효과에 비해 아주 작다고 할 수 있지만, 그(너무 작은) 것조차 예술 경험에서는 꽤 크다. 예술작품에 대해서는 그것도 예견하지 못한다. 예술작품의 효과들, 경험자에게 풀어놓는 정동들은 매우 다양하며 대체로 알려지지 않은 수준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별로 틀릴 걱정 없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작품과 상호작용해서 생긴 경험보다 한 사람의 삶을 더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경험은 드물다. 일상과 실존의 어려움은 가장 평범하고 흔한 수준에서 사람들이 세계를 보고 경험하고 거기서 내리는 방식에 엄청난 효과를 준다. 하지만 예술작품의 영향 역시 거대하며, 일상이 낼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어떤 영화, 소설, 노래는 생각지 못한 수준들에서, 어쩌면 무한히 다양한 방식들로 삶에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영화가 사람에게 작용하는 방식은 노래에 영향받는 방식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노래는 많은 것을, 특히 내가 "기후들"이라 부를 것을 전달할 수 있다. 물론 음악만의 것은 아니지만 음악에서는 온전히 풀려난다. 책, 가령 소설 읽기는 한순간에서 다음 순간에 걸쳐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실존

전체에 영향을 줄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다. 헤세의 『데미안』 이나 사바토의 『터널』 이나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같은 책의 독서는 경험한 이들을 영원히 바꾸었음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물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저 믿음과 윤리 가치와 미적 구조들의 어떤 공허를 내용으로 채우려는 스펀지인가? 이를 받아들임은 깊은 오류로 보이지만, 문제는 처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매우 많은 별개의 수준들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모든 주제와 상황, 모든 종류의 예술과 예술가와 인간에게 늘 있지는 않은 수준들. 블레스트 가나가 『마르틴 리바스』를 쓸 때 머리에 특정 관념들이 있지만, 그 관념들이 텍스트에 잘 놓였거나 아니라고 생각했든, 풀어놓은 효과와 정동은 그가 예견할 수 있었던 어떤 계획도, 어떤 기획도, 더 중요하게는 어떤 예방도 넘어선다.

『마르틴 리바스』(책, 소설)는 상호작용하는 세계들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우리는 그것을 다루고 말한다는 사실만으로 안다. 보르헤스는 작가들의 다른 질적 수준과 초월 가능성에 관해 이미 말했다. 일류 작가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그들 중 많은 이는 소수 이상에게 결코 읽히지 않을 것이라고. 보르헤스는 그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현실이 너무 많은 저자의 성공적 존재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달하려 했던 듯하다. 이는 이 텍스트에서 전달하려는 방향에 상당한 의미와 쓸모가 있다.

하지만 잠시 블레스트 가나와 그의 『마르틴 리바스』로 돌아가자. 바로 이 점(“그의 『마르틴 리바스』”, 그 “그의”)을 취하면 무슨 뜻인가? 블레스트 가나의 『마르틴 리바스』가 우리 것과 다르다는 뜻이 아닌가? 더 정확히는, 블레스트 가나의 『마르틴 리바스』가 읽고 경험한 각 개인의 각 『마르틴 리바스』와 다르다는 것. 작은 주석. 나는 읽기와 경험하기를 구별한다. 많이 읽히지만, 예술작품과 상호작용하는 일은 다르기 때문이다. 경험은 기본적인 기계적 절차로 얻어지지 않는다. 특정한 사전 소양이 필요하다.

사전 소양의 문제는 예술 일반에 복잡한 주제다. 예술작품들이 거의 자동으로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마치 신체를 그 위에 놓는 것만으로 은혜를 누리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듯이. 물론 그렇지 않다. 예술을 경험하려면 대개 매우 복잡하고 얻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소양이 요구된다. 반대로 믿는 것은 인간 경험의 본질적 측면 하나를 왜소함과 부조리로 줄이는 일일 것이다. 이는 소양이 빈약한 독자들이 자기 『마르틴 리바스』를 만들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올바른

예술 감상에서 소양의 중요성을 짚을 때, 소양의 부재나 빈곤이 작품에서 무언가 얻는 데 제약이라는 말은 아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가치가 더 낮고, 저하되고, 심지어 아무 중요성 없는 경험으로까지 단순화된 경험이리라는 것이다.

현실 구조의 이해에 정치적 측면들을 들여오려 하면 복잡해진다. 대체로 대부분의(더 정확히 모든) 경우 정치는 자신과 다르고 자신이 들어가려는 영역들을 파괴한다. 이는 정치 목적의 예술에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마르틴 리바스』는 분명 그 방향의 작품이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우리는 앞서 모든 작품은 창조자가 추구한 것과 다르다고 했다. 예술가의 탐구는 자신 위에 닫힐 수 없어 목적을 이룬다. 예술가의 현실에 특정 작품을 가져오려 하지만, 바로 완성되는 순간 작품이 창조자에게서 독립하는 역설처럼 보이는 상황이다. 더는 창조자의 것이 아니며, 창조자에게 반항하며 "non serviam", "나는 당신을 섬기지 않겠다" 하는 루시퍼처럼 행동한다.

모든 작가는 생산한 작품에 대해 그런 상황, 더는 어떤 통제도 갖지 못한 상황에 처한다. 나는 패권적 문화 체계 밖에서 생긴 어떤 작품들이 단순 민속주의라 부를 것을 넘어설 힘을 막는 기준들에 제약되는 듯한 문제를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긴다. 복잡한 것은, 작품이 때때로 갱신되려면 더 크고 대규모로 인정·정당화된 질서에 새겨져야 한다면, 회로 밖의 작품들은 갱신에 문제가 생겨 엄청나게 축소된 상징망에 갇히고, 특정 시대의 아주 특수한 현상을 말할 때만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사안의 두 핵심 측면이 표현된다. 어떤 작품의 과도한 특수주의(어쩌면 형식적)라 부를 것과, 작품을 특정 시기에 칸막이하는 경향이다. 첫째는, 앞서 말했듯 더 큰 패권적 회로 밖의 작품이라는 점과 많이 관계된다. 특정한 맥락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것이 핵심 특성이 되는 주변의 작품들, 단순한 존재 자체가 작품이 소통하려는 것(이 표현을 제대로 쓸 수 있다면)보다 생산자가 누구인지를 더 말하는 듯한 작품들.

작품이 고유한 상징적 잠재력보다 창조자나 창조자들을 더 참조하면 복잡한 문제 앞에 서게 된다. 작품-현상에 그 이해와 논의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환원주의가 적용되는 것이다. 생산 시기에 따라 작품이 겪는 칸막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바로 만들어진 순간이 관심 대부분을 사로잡는다. 어떤 이유로 흥미로워지는 것은 생산 시대, 창조가 일어난 시간의 순간이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상징적 힘으로 현재나 구체화된 때와 다른 시기에 쉽게 놓일 수 있는 작품들을 마주한 것이 아니다.

이 두 제약은 의심 없이 작품의 잠재력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갱신 불능이 단순 생산 맥락 이외의 것을 언급하는 데 사용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만든 작품들이 겪는 문제들이다. 『마르틴 리바스』는 주변에서 만든 작품이다. 엄청난 환원주의에 놓여, 중요성을 갖는 유일한 장면은 칠레 역사 특정 시기의 문학적 표상으로서이고, 대체로 가장 큰 생산성은 심성의 생산자로 지목되는 것이다. 예를 몇 개만 들면 카프카나 조이스나 미시마의 작품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그 작가들은 보편적이라 여겨지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왜 어떤 작가는 보편적이고 다른 작가는 아닌지, 왜 어떤 이는 늘 유효하고 열렬히 재맥락화되고 다국어로 재간행되고 문학 외의 매체에 각색되는지 등을 물을 수 있다. 단순한 답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아무리 답하기 어려워도 물어야 한다. 거기에 주변부의 운명이 어느 정도 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어떤 작가는 전체와 총체성을 참조하게 하고 다른 작가는 그렇지 않게 하는가? 주제가 반드시 더 보편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작품이 경험자에게 정동들을 풀어놓는 형태를 이해하려 한다면 이는 중요한 사안이다.

작품이 풀어놓는 정동이 생산 맥락에 과잉결정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우리는 사실상 맥락이 작품을 소진하지 않고 오직 시작일 뿐임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작품에는 단지 생산에 관련된 것 말고 다른 모든 것에 거하는 잠재력의 연속이 있다. 심지어 생산 맥락에만 관한 것은 작품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고 가장 기계적인 부분이라 할 수도 있다. 이는 분명 다소 대담한 선언일 수 있다. 저개발 세계의 예술 상당 부분이 그 조건을 주제화하여, 맥락이 내용 자체의 일부로 큰 중요성을 갖는 경향을 고려하면 그렇다. 물론 그것이 그 맥락의 물질적·문화적 조건 개선에 기여하는지도 논쟁적이다.

하지만 총체성을 참조하려는 작품들은 결국 자신이 총체성이라 이해하는 것의 유토피아적 이미지만 참조하지 않는가? 모든 총체성은 담는 것의 모호함의 한 형태이기도 하며, 너무 많이 포괄해 더는 포괄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모두 도둑인 곳에서는 아무도 도둑이 아니다”나, 주제에 더 맞게는 “모든 것이 예술이면 아무것도 예술이 아니다”와 같다. 그러면 보편적(심지어 고전적 보편)인 작품들이 어떤 의미에서 복잡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하면, 문제는 뒤집힌다. 보통 위대함을 증명한다고 여기는 보편성이 실제로는 결여(생산 맥락에서 떨어져 나온 것에 고유한 무게 없음, 가벼움)를 드러낼 수 있는 한에서.

결점으로 여길 수 있던 것이 이제 가치 측면으로 편입된다. 하지만 우리는 할 가능성이 있어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님을 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편적이라 여겨진 작품들을 결여의 처지에 놓는 재해석과 해석학적 조작을 할 수 있다고, 그 방향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그렇게 해서(적어도 지금) 가치 있는 결과에 진정 이를 수 있을지 별로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동이 세계에 들어가는지를 결정하는 한계는 텍스트와 팸플릿들로 바꾸지 못한다. 현재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아주 많은 문제들에 달렸기 때문이다. 남는 것은 계속하는 일, 미래의 "자유로운 이들"의 과업이다. 픽션과 이론이 언제나 그래왔듯 같은 얼굴로 드러나는 미래. 시간과 의지와 다른 것에서 나오는 질서에 새겨진 얼굴이다. 근본적으로 저자를 죽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 텍스트가 따른 전체선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실제로 어려움은 우리가 아직 등장하는 생산 맥락들에 더 있다고 하자. 어쩌면 말들을 급진화해야 한다.

우리는 문제를 풀 계획도, 집중할 방식도, 돌아서도 결과 없는 방법도, 여기 미술관 안의 존재도 없음을 안다. 비어 있고 가득하지만 절망할 만큼 비어 있다. 형용사들을 치워두자. 공허는 색칠되어서는 안 되며 중립적이고 표정 없이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모든 몸짓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고, 병적인 것을 향한 너무 큰 성향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가장자리에 있지만 새롭지 않다. 우리는 언제나 가장자리에, 두려움과 위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실체에 신체들, 이전에 창조되고 이제 비창조된 기계들을 가져온다.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계들, 그저 반응하고 안무를 따를 수밖에 없는 꼭두각시들. 글쓰기는 이미 단순성의 문제를 거쳤다. 아직 극복하지 못했으며, 우리에게 낯선 기억의 장식들에서 자유로워지기는 엄청 힘들다. 전투가 얼마나 임박할지 모른다. 우리는 종교의 귀환이 필요함을 안다(그렇다, 안다). 20세기 전반의 프랑스와 독일 실존주의자들도 이미 말했다. 관심의 많은 부분을 기술 문제에 두기는 했지만. 그 문제는 더는 그리 관심사가 아니다.

우리 시대는 인간의 기초와 한계, 인간이 극복될 형태를 묻는 시대다. 문제는 분명하고 나무도 분명하고 오류들은 반투명하다. 영구적 대립은 이제 해명을 요구한다. 예술의 의미를 잃었지만 예술 자체를 잃지는 않았다. 예술은 늘 있던 곳, 역사에 있다. 정보가 넘치며 우리는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아침부터 죽음을 중단하고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말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의무일 것이다. 새 철학이 이 예술, 우리의 예술, 파괴보다 더 많이 건설하는 예술을 통해 길을 연다.

모든 것은 중단될 수 있다. 우리가 이 세계를 지탱할 수 있고,(수천 년의 단죄 뒤) 인간 현실을 구조화하는 교의인 비극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쉬운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빠르고 조밀한 예술을 사랑하기에 등을 돌려 말하거나 사라진 신과 소통할 수 없다. 나타남의 귀환을 호소한다. 통일은 절대의 요건, 중심적인 것과 주변부와 여백을 지탱하는 것의 힘이 명시적으로 나타남이다. 중심에 거하는 것의 실용적 · 개념적 영향 없는 주변부는 없다.

예술의 지옥은 형태이며 우리가 추구하면서 도주하려는 것이다. 절대적 무질서에 이르도록 물질적인 대상들과 그 광란의 영들에서 달아나는 것. 핵심은 명령하고 복종할 능력, 기술에서 멀어져 조금씩 천천히 집중하여 마침내 어둠, 완전한 어둠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손에 든 개념은 예술이 되고 빛은 형이상학에서 스스로 파괴된다. 여기서 포스트휴먼 예술은 새 언어, 죽음과 스스로를 사유하는 존재를 여전히 따라다니는 동물적 조건들에서 해방된 존재들의 언어를 말할 수 있다.

시간은 지나가지만 재료와 표면과 이론은 그러지 않는다. 기다리고 스스로 프로그래밍하고 정상적으로 쓰다가 감고 풀며 형태들을 부수고 재구성하는 예술. 선택은 죽음이며, 죽음은 한순간, 역사의 한순간, 특정한 인간적 결함이 표현된 순간일 뿐이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전부다. 정전과 싸우고, 이해의 결여를 묻고, 기획과 문자를 혼동하는 것. 읽기는 중심적이다. 아래로부터의 주석은 중심적이다. 번역은 쓰인 것의 의미를 바꾸나 그로써 드러낸다. 말들과 무기들, 기록들, 새들과 거울들. 묶이고 식탁 위에 놓이도록 하는 구조화들, 그것은 경이롭고 존엄한 행동이다.

예술의 현실은 살과 우주를 하나의 방식으로 함께 참조하는 것이다. 대중의 마음에 새겨짐, 고장 났지만 쓸 만한 엘리베이터. 필요한 것은 이 필요한 예술을 조립하고 말과 무대를 제공하고 믿을 것을 주는 일이다. 크게는 그것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들을 탈국지화하고, 틀과 원초적 취약성과 초월론적 이원론을 나가야 함에 합의해야 한다. 자신을 어둡게 하고 표시하고 빛으로 나가는 것. 실험을, 안료와 내적 의미의 색채화를 느끼는 것.

이제 책략은 변화의, 변화의 감각의, 주변부 탈출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중심으로 정면에서 걸어가 장치를 조립하는 것. 넘을 수 없는 것과 역방향의 길). 식물들과 광물들과 컴퓨터들, 소프트웨어와 미래로 가득하고 구원으로 가득하고 단순 도주의 거부로 가득한 것들. 지금 사명이 있다. 순전한 부조화에 기초하여 구성되지 않는 예술을 생각하는 것. 그러려면 덜 부드럽고 상징적 지평들의 재구조화에 더 지향된 다른 예술가들이 나와야 한다. 필요한 강도와 효율은 미술학교에서 오지 않을지 모른다. 그곳들은 예상된 자리들, 추구되는 책략들, 인정된 반항의 서사들을 재생산하는 데 너무 갇혔을지 모른다.

이는 국제적으로 다룰 국제적 문제, 의심할 여지 없이 도쿄에서 산티아고까지의 문제다. 무기들과, 자신이 무한함을 아는 이의, 형태가 아직 한계와 가장자리에 이르지 않았음을 아는 이의 사나운 고요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교회가 교회로 바뀌기를 바란다. 확실한 것이 기호 안에 물질화되어 무의미에 항복하지 않으며, 과잉교육된 장황함에서 시가 나오기를. 예술계의 구조적 무질서는 우리가 풀어놓아야 한다. 작품 구축에서 더 적은 정치와 더 많은 위험을.

다른 거울을 보지 않으며 철학은 쇄신하고 정신을 돌리고 기업적 의복을 더럽히고 공식 안에 갇힌 재능을 풀어준다. 몇몇의 거짓만으로 옛 정오에 숨었던 반항자들의 공간을 열기에 충분했다. 호화로움의 모든 발현은 그 목적들에서 멀어졌고, 모든 집중은 지금 자신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의 종류에 확신을 가질 때 무심히 남는다. 그 모든 것은 만의 가장자리에서 직접 펼쳐진다. 특정한 만, 특정한 해. 1984년은 완벽한 군사적 게임의 시작이다.

같은 색은 과거의 자부심이었던 사나운 괴물들을 버리기 위해 쓰였다. 이제 그들은 단지 자기 이미지에 문제가 있던 시대의 살아 있는 이미지일 뿐이었다. 문자에 지나친 정성, 배선 사이에는 같은 오물. 불규칙한 유리에 액자 친 태양들은 이제 참으로 역사적 이동에 완전히 박힌 새 아침들의 리듬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제한된 것이 군림하려 하고 특정 방향에서만 대화가 가능했던 시대의 흔적은 남지 않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은 소멸하는 세계, 자기 행동 때문이 아니라 현실과 완전히 단절되었기에 부인당하고 소멸 선고를 받은 세계의 일이다. 환각제로 가득해 우리는 디지털화와 그 숭고와의 친밀한 연결이라는 열차에 거꾸로 잠길 수 있었다. 텍스트들이 형식적인 것과 이상적인 것의 초연결을 말하는 곳에서 우리는 단순히 시야를 조금 더 열고,

권장되지 않는 저자들을 조금 더 읽을 수 있었다. 더 정확히는 지식을 전해야 할 이들이 알지도 못했던 저자들을. 우리가 전진했다면 받았던 교육에도 불구하고 그랬다.

번역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번역은 감각들의 유혹과 밀접히 연결되며, 감각들은 자기 악덕으로 언제나 무효화되는 중립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질서, 자신들을 낳고 의미와 존재 이유를 준 대양의 아주 바깥에 있었다. 무제한적인 것과 혼돈적인 것을 혼동하는 일은 예술 발전에 내재한다. 우리 모두를 담긴 영원의 늘 빛나는 이미지로 이끄는 환원 불가능한 흐름의 징표다.

적대적 의미들의 형식적 환원과, 다중성들이 몹시 분개하는 듯한 의무감의 비영속적 가속을 권하는, 뚫을 수 없는 로고스 없이 살 줄 모름에는 어떤 죄의 몫이 있다. 예술의 악덕이 거리를 두고 말러를 읽고 어떤 선조의 문이라도 열기 위해 군림하는 방식을 찾는 것은 강 안에서다. 죽은 자들을 만지지 않으려다 우리는 이성이 드러낼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결국 우리는 기계다.

비가 내리고 역사 기록이 어두워지는 동안 우리는 찾은 것을 먹고 전용 공간들에 지평을 액자 쳤다. 확인해간 것은 미래에 행했고, 각 작품 제목을 조심스럽게 기록했다. 아마 가장 큰 밝음은 미적 폭력에 접근하는 어떤 방식에서 왔으며, 거기서는(신랄한 입장들에서) 아직 어떤 발산이 가능했다. 안드로이드들은 여전히 우리 사이를 걸었고, 어떤 과학적 시선이 미래 인간에게 주려던 듯한 작은 집은 자체의 미래가 없었다. 확장은 전면적이었고, 부주의한 관찰자에게 가장 기이한 것은 그 조작이 태고부터 계속 일어나왔다는 점이었다. 거대한 천년의 음모.

미적 군사화는 전면적이며, 미끄러짐이 아닌 선이 우세한 형식적 지평을 열려는 이들에게 욕망되고 추구된다. 먼 철학자의 황혼 틀. 바다에서 가까운 신을 무찌르려 한다. 성상은 알려진 지식의 원천을 뛰어넘어, 빛이 태어남을 보고 싶지 않은 그림자에게 거짓말한다.